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조지아

Republic of Georgia

2023년 3월 28일 | 책임조사역(G3) 김재원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70천 km <sup>2</sup> 	<b>인구</b> 372만 명 (2022 <sup>e</sup> ) 	<b>정치체제</b> 내각책임제 	<b>대외정책</b> 러시아와의 갈등 및 서방과의 관계 정체 
<b>GDP</b> 252억 달러 (2022 <sup>e</sup> ) 	<b>1인당GDP</b> 6,770달러 (2022 <sup>e</sup> ) 	<b>통화단위</b> Lari (GEL) 	<b>환율(U\$기준)</b> 2.92 (2022 <sup>e</sup> ) 

- 조지아는 흑해 동남쪽 카프카즈 산맥 기슭에 위치한 소국으로 러시아, 터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의 4개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철, 구리, 금 등 1차산품의 수출 및 관광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편임.
- 조지아 내 남오세티야 및 압하지야 지역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둘러싸고 2008년 발발한 러시아와의 전쟁 결과 러시아가 승리하여, 현재 남오세티야 및 압하지야 지역에는 조지아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중되었으나 전쟁 장기화와 러시아 정부의 부분 징집령을 피하려는 러시아인들의 조지아 유입으로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한편 투자규모도 증대되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물가도 상승 추세임.
- 2022년 3월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원국 후보 자격 부여가 보류되었음. 조지아 정부는 가입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 러시아 관계에 대한 여당과 야당 간 정치적 대립 심화, 조지아 내 남오세티야 및 압하지야와의 소규모 분쟁 지속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이 존재함.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12. 14 수교 (북한과는 1994. 11. 3)

**주요협정** 외교관·관용·공무사증면제협정('13), 문화·예술·청소년·체육협력협정('14), 해운협정('14), 이중과세방지협정('16),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19), 항공업무협정('21)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0	2021	2022 <sup>e</sup>	주요품목
수출	98,162	103,114	120,543	자동차, 철강판, 건설광산기계
수입	14,676	11,214	9,957	동제품, 정밀화학원료, 의류

해외직접투자현황(2022년 9월말 누계,총투자기준) 14건, 206,888천달러

## 국내경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sup>e</sup>
경제성장률	4.8	5.0	-6.8	10.4	9.0
소비자물가상승률	2.6	4.9	5.2	9.6	11.9
재정수지/GDP	-0.8	-1.8	-9.3	-6.0	-3.0

(단위: %)

자료: IMF, 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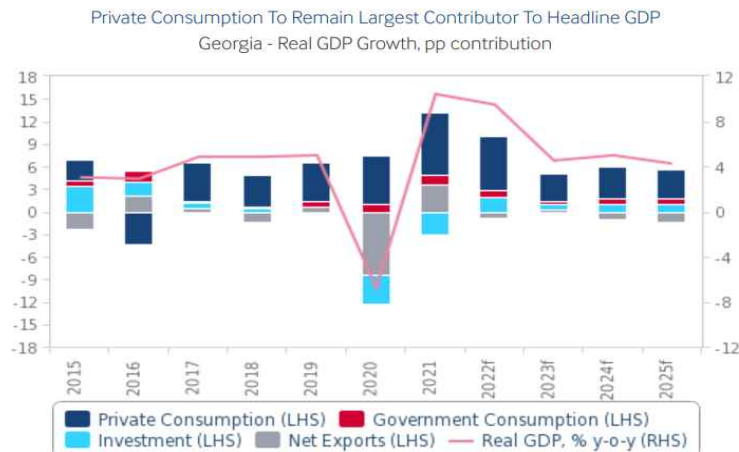
### 관광업 회복 및 외국인투자 유입액 증가, 러시아로부터의 이주민 급증으로 인한 민간소비 증가로 2021년 10.4% 및 2022년 9.0%의 경제성장 추정

- 조지아 경제는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수요 위축과 관광업 침체를 겪으며 -6.8%의 역성장에 그쳤으나, 2021년 들어 팬데믹이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하며 가계소비지출액이 479.6억 달러로 전년(397.9억 달러) 대비 20.5% 증가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도 11.5억 달러로 전년(5.7억 달러) 대비 101.6% 증가하는 등 기저효과에 힘입어 2021년 10.4%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음.
- 2022년에는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관광업의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정부가 부분 군 동원령을 발표한 직후 강제징집을 피해 조지아로 입국하는 러시아인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주도하는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한 결과 기저효과 없이 9.0%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조지아 관광 수입 추이(백만 달러): 541.7('20) → 1,245.2('21) → 3,516.6('22)

- 조지아로 이주한 러시아인들의 수는 현재까지 2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S&P Global은 이와 관련된 서비스 부문의 호황이 2022년 조지아 경제성장에 10% 이상 기여했다고 추정하고 있음. 러시아 상류층들에 의한 현금유동성 유입도 크게 늘어나, 조지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로부터 유입된 자금이 31.7억 달러로 전체 외화자금 유입액의 59%를 차지함.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인들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서 당분간 민간소비 증가로 양호한 경제성장률이 유지될 전망이다.

[그림 1] 민간소비 부문의 조지아 GDP 성장률 기여도 현황 및 전망(2015~25년)



## 국내경제

### 에너지·식료품·원자재 등의 수입물가 상승, 관광업 호황과 러시아인 유입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이 복합되어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역대 최고치 추정

- 2022년에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자원, 식료품, 원자재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는 동시에 관광업 호황, 징집을 피한 러시아인들의 유입 등으로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역대 최고치인 11.9%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였음.
- 조지아는 에너지 및 식료품 국내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여 원유, 농수산물 등의 국제가격 변동에 취약한 국가임.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러시아의 경제상황 변화에 국내경기가 민감하게 반응함.
- 2022년에는 특히 러시아인들의 유입으로 부동산 임대수요가 급증하여, 수도 트빌리시의 경우 임대료가 전년보다 무려 75% 이상 상승하였음.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식료품 가격 폭등이 5.7%p 이상을 차지하고 교통, 주거비용이 각각 1.7%p 및 1.2%p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조지아 중앙은행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목표 수준인 3%대로 관리하기 위해 당분간 11%의 높은 정책금리를 유지하는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고 밝혔음. 2023년 들어 국제유가가 하향세로 접어들고 식료품 수입가격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5년 간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한 자릿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조지아의 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2009~31년)



자료: National Bank of Georgia

## 국내경제

### 세금우대정책의 단계적 완화로 정부지출이 감소하며 재정수지 적자 개선

-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위기관리를 위한 각종 지출, 특히 관광업 등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산업과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하여 재정지출은 감소 추세임. 아울러 팬데믹 관련 세금의 유예 및 면제조치가 2021년을 끝으로 종료되고 관광업 등 주요 산업 부문들이 침체를 벗어나면서 세수 증가로 재정수입도 늘어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9.3%에서 2021년 -6.0%에서 2022년 -3.0%로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조지아 정부는 2018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정책을 시행하여 매출세액을 5%에서 1%로 인하하였으며, 12만여 개 기업이 동 혜택을 받고 있음.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들에게 재산세 납부를 2020년까지, 소득세 납부를 2021년까지 유예해 주었고 호텔, 케이터링 서비스, 관광업체 등에게는 재산세를 2021년까지 면제해 주었음.
- 조지아 정부의 재정수입은 2019년 124억 달러에서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20년 116억 달러(세수 약 105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다시 143억 달러(세수 약 130억 달러)로 회복되었음. 조지아의 세수구조는 기업소득세(15%), 재산세(1%), 개별 소득세(20%) 부가가치세(18%) 수입관세(품목별로 1%/5%/12%)와 토지세(비농경지는 제곱미터당 0.24라리) 등 6가지로 단순함.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 상 수 지	-1,265	-1,078	-2,161	-2,035	-940
경상수지/GDP	-7.2	-6.2	-13.6	-10.9	-3.7
상 품 수 지	-4,116	-3,792	-3,165	-3,790	-4,134
상 품 수 출	4,407	4,946	4,347	5,539	5,680
상 품 수 입	8,522	8,737	7,512	9,329	9,814
외 환 보 유 액	3,089	3,307	3,700	3,784	4,426
총 외 채	17,631	18,445	20,089	22,053	22,682
총외채잔액/GDP	100.2	105.5	126.8	118.0	90.1
D.S.R.	18.9	19.0	26.9	18.2	18.3

자료: IMF, EIU

###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는 경상수지 적자의 근본 원인

- 조지아의 무역구조는 동일 품목에 대한 교차적 수출입이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고가의 원자재를 수입하여 재조립·가공 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형태가 중심임. 이로 인해 상품수입이 상품수출을 능가하는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2021~22년의 상품수지 적자 증가는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상품수입액 증가에 기인함.
- 2022년 상위 3대 수입품목(금액 기준)은 자동차(12%), 석유 및 석유제품(9.9%), 동광(銅鑛) 및 농축물(5.8%)이었으며, 주요 수출품은 동광 및 농축물(18.3%), 자동차(16.2%), 철합금(8.2%)임.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이란, 튀르키예 등임.

### 2022년에는 관광업 경기 회복, 러시아로부터의 송금 유입액 급증으로 경상수지 적자 개선

- 서비스수지와 이전소득수지는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도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꾸준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이전소득수지는 해외송금 유입액에 힘입어 매년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러시아로부터의 송금 유입액 급증으로 21.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서비스수지 흑자(관광업 중심 15.3억 달러)와 함께 상품수지 적자(41.3억 달러, 경상수지 적자 9.4억 달러의 4.4배)를 상당 부분 상쇄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전년(-10.9%)보다 대폭 개선된 -3.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 기준 러시아에서 조지아로 유입된 자금 31.7억 달러 중 조지아로 이주한 망명 러시아인들이 장기 체류하며 신규 법인 개설, 부동산 및 자동차 구입 등을 목적으로 러시아에서 송금받은 금액이 20억 달러로 추정됨.

## 외채상환능력

###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FDI 유입 등에 힘입어 외채상환능력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

- 2022년 말 IMF 기준 조지아의 외환보유액은 44.3억 달러로 월평균수입액의 3.9개월분에 해당됨. 조지아 중앙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조지아의 공식 외환보유액은 지난 10년 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1월 현재 49억 달러 수준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각종 제도 개선에 부응한 FDI 유입 증가가 예상되어 당분간은 동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조지아의 외환보유액 추이(2015~22년)



자료: The National Bank of Georgia

- 2022년 기준 조지아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90.1%로 추정됨. 이는 민간소비 회복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증가에 따라 외채잔액 대비 GDP 규모가 커지며 전년(118.0%) 대비 약 28%p 개선된 것이나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함. 한편 D.S.R.(외채원리금상환비율)은 총수출 증가에 힘입어 18.3%로 무난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제성장률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총수출도 증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조지아 정부는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했던 조세 우대 정책을 점차 축소 및 폐지하는 등 재정지출을 줄일 계획임. 향후 투자개발의 활성화,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 등이 전망됨에 따라 외채상환능력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구조적 취약성

### 대외변수에 민감한 단일화된 산업구조, 인프라 및 기술인력 부족

- 조지아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GDP의 약 68%를 차지하여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외부수요 변화, 지역 내 역학관계 변화 등에 따라 국내경기 변동성이 큰 편임. 제조업의 경우 산업 인프라 미비,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품의 단순 가공 및 부품 조립 중심의 저수익성 구조에 머무르고 있음.
- 조지아의 대외거래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원자재나 고부가가치 생산품을 수입 후 재가공하여 중개거래 하거나 단순 조립 후 재수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낮아 상품수지 적자가 큰 편임. 대표적 수출입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2022년 기준 수입액 16.2억 달러, 수출액 9억 달러로 -7억 달러의 적자(상품수지 적자의 약 17% 추정)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
- 관광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전쟁이나 팬데믹 등의 외부변수에 경제성장률이 크게 좌우되는 불안정한 산업구조임. 관광 수입은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5.4억 달러에 그친 뒤 2021년 12.5억 달러, 2022년 35.2억 달러(추정치)를 기록하여 경상수지 적자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음.
- 제조업 수출에서 첨단기술 제품의 비중은 1.6%로 미미한 편이며, UN Population Division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매년 평균 0.5%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가계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필수품, 특히 식료품 수요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여 식료품 가격 변동 리스크가 높은 편임. 최근의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식료품 가격 상승에 의해 견인되었음.
- 조지아 정부는 2030년까지 농산물 수출을 30억 달러 이상 늘리고 주력 농산품인 와인 및 주류, 탄산수의 생산과 수출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과 노동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자립적인 생산능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됨.

### 달러화 의존도가 높고 외환보유액 중 달러화 유가증권 비중이 높아 미국 금리 리스크에 노출

- 2022년 말 조지아의 외환보유액은 44.3억 달러(IMF 기준)이며, 조지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의 구성은 외화표시 유가증권 투자액 29억 달러(약 65%), 현금 및 외국통화 15억 달러임. 외화표시 유가증권 중 달러화 표시 비중이 높아 미국 금리 리스크<sup>1)</sup>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 달러화 표시 채권, 투기성 단기 유입자금 등의 외화 순유출로 인한 외환위기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금융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실제로 금년 2월 25일 미국 1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E)가 예상치를 상회한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추가 긴축 가능성이 높아짐. PCE는 연준의 통화정책 및 경제성장을 전망할 때 참고하는 주요 지표로, 미국은 CPI와 PCE 지수가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2022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해 온 바 있음.

※ 0.5%(22.3월) → 1%(5월) → 1.75%(6월) → 2.5%(7월) → 3.25%(9월) → 4%(11월) → 4.5%(12월) → 4.75%(23.2월)  
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성장잠재력

### 주변국들 간 분쟁으로 카스피해의 주요 물류 수송 증개지로서의 지위 강화, 최근 아제르바이잔 및 튀르키예와의 협력 활성화

- 조지아는 유럽, 아시아, 중동의 교차점인 캅카스(러시아 남서부,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일대를 지칭) 지역에 위치하여 시장접근성이 유리하고, 카스피해 유전/가스전에서 생산된 에너지 자원을 유럽으로 수송하는 주요 오일/가스 파이프라인들이 통과하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가 시작되면서 에너지 자원을 수송하는 우회로로서 조지아의 위상이 확고해짐.
- 산유국이며 에너지 수출국인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싼 아르메니아와의 전면전 이후 아르메니아와의 모든 교역을 단절하고 대신 조지아를 협력 파트너로 선정함.
- 조지아는 2000년대 들어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와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2005년 3개국 주요 도시 이니셜을 딴 BTC<sup>2)</sup> 송유관을 건설한 이후 통과료로 연간 6,250만 달러를 수취하고 있음.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금수조치로 유럽 국가들이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있어 조지아의 통과료 수입도 증가할 전망이다.
- 2006년 완공되어 아제르바이잔의 카스피해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터키로 수송하는 BTE<sup>3)</sup> 파이프라인도 조지아를 지나고 있어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증개거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3개국을 연결하는 BTK<sup>4)</sup> 철도의 건설을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임. 조지아 정부는 BTK 철도 개통으로 철도 물동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철도 인프라 현대화를 추진 중임.
- 조지아는 아제르바이잔과 교류가 단절된 아르메니아와도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내륙국인 아르메니아의 유일한 수출입 경유지로 자국의 흑해 연안 항구를 개방함과 동시에 막대한 통과료를 징수하여 운송 관련 수입이 GDP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22년 12월 조지아는 EU,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루마니아 등과 해저 송전망 건설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조지아가 생산하는 전력을 유럽 시장에 공급할 계획임. 이를 위해 발전용량 2,300MW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며, 총투자금액 3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국가의 운송능력을 보강하고 화물 경유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조지아 정부는 아나클리아 항구의 건설을 추진하고 투자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개시함. 아나클리아 항구 개발 프로젝트는 3년 전 중지되었으나, 2023년 1월 정부가 프로젝트의 51%를 소유하고 나머지를 글로벌 기업의 투자로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프로젝트의 재개를 선언함.

2)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Baku),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Tbilisi), 터키 남부 아다나 주의 도시 제이한(Ceyhan)을 연결.

3) 바쿠, 트빌리시, 터키 동부 에르주룸 주의 주도 에르주룸(Erzurum)을 연결.

4) 바쿠, 트빌리시, 터키 북동부 카르스 주의 주도 카르스(Kars)를 연결.

## 정책성과

### 적극적인 무역협정 체결 및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으로 교역상대국 다원화 및 FDI 증가

- 조지아는 관세율이 낮고 세관의 통관절차도 간편하여 대외교역이 확대되는 추세임. 조지아에 대한 최대 투자국인 튀르키예를 비롯하여 14개의 일대일 또는 공동 자유무역협정(FTA)<sup>5)</sup>을 맺고 있으며, EU·미국·캐나다·일본·스위스와는 특혜관세협정(GSP)을 맺고 있음.
- 수출품과 재수출품에 대해 관세 의무를 면제하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국산품과 수입상품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조지아는 2016년 7월 발효된 EU와의 심층·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sup>6)</sup>을 통해 자국의 무역 관련 법·규정 체계를 EU의 기준에 합치하도록 개정하여 시행 중임. 또한 최근에는 아시아 시장에도 눈을 돌려 중국, 홍콩과의 FTA가 각각 2018년 1월 및 2019년 2월 발효되었음.
- 2021년 조지아의 FDI 유입액은 11.5억 달러로, 상위 3개 투자부문은 금융(38.5%), 에너지(13.62%), 제조업(12.4%)이며 상위 3개 투자국은 영국(6억 달러), 네덜란드(1.3억 달러), 체코(0.8억 달러)임. 상위 투자국 구성이 기존의 러시아·CIS 중심에서 유럽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나, FDI의 70%가 기업 수익분의 재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규 사업을 위한 개발투자보다는 기존 사업의 확장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22년 3분기 FDI는 업종별로 부동산 35.6%, 금융·보험업 21.3%, 예술·레크레이션 19.2% 등으로 집계되었음. 특히 부동산에 FDI가 집중된 것은 러시아 이주민들의 조지아 내 부동산 구입 및 개발에 따른 결과로 추정됨.
- 2024~27년 중 조지아의 FDI 유입규모는 연평균 21억 달러로 예상됨. 이는 조지아 GDP의 약 5.6%에 달하는 수준으로, 수출과 함께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물류시설, 운송 분야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2021년 6월 조지아 정부는 중소기업과 광산업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프라를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농업과 환대산업(hospitality industry)<sup>7)</sup> 개발, 지방 도시의 배수망과 가스관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10개년 개발계획을 공표함. 동 계획의 추진에는 외국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조지아 정부는 이를 위한 FDI 유입을 적극 장려할 것으로 예상됨.

5) 2023년 3월 현재 조지아의 FTA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음(괄호 안은 발효일) : 러시아(1994.5.10.), CIS(1994.12.30.; 현재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1996.1.4.), 아제르바이잔(1996.7.10.), 아르메니아(1998.11.11.), 카자흐스탄(1999.7.16.), 투르크메니스탄(2000.1.1.), GUAM(2003.12.10.; 조지아(G), 우크라이나(U), 아제르바이잔(A), 몰도바(M)의 머릿글자), 튀르키예(2008.11.1.), EU(2014.9.1.), EFTA(2017.9.1.), 중국(2018.1.1.), 홍콩(2019.2.13.), 영국(2021.1.1.).

6)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7) 숙박, 식음료(레스토랑), 이벤트 기획, 테마파크, 여행(관광)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서비스 산업 개념.

## 정책성과

### EU 가입 조건 충족을 위한 정부의 개혁·개방 가속화로 경제자유도 상승

- 조지아 정부는 적극적인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며 EU 가입 조건의 충족을 위한 각종 법·규정 개정 및 개혁·개방을 지속하고 있음.
- 조지아는 EU와의 DCFTA 체결을 계기로 교통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며, 관련 규정의 완화 및 인프라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흑해-캅카스-카스피해 지역의 교통 및 물류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조지아-EU DCFTA는 EU의 해상, 도로, 철도 및 내륙 수로 운송에 대한 세부 지침과 규정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자격, 차량과 선박의 기술적 안전성, 검사기관의 활동 등을 관리함.
- 항공 운송의 경우 'EU-조지아 공통 항공협정'(2010년)에 따라 조지아와 EU 간 항공 운송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하고 EU의 교통망에도 동참할 것으로 전망됨. EU는 앞서 2017년 조지아 국민들이 쉥겐 협약 가입국들에 대해 무비자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바 있음.
- EU 집행위, 유럽 의회, EU 이사회는 2023~24년 EU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 분야를 담은 공동 선언문(EU Legislative Priorities for 2023 and 2024)을 마련했으며, 조지아의 EU 가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함.
- 한편, 이러한 개혁·개방 추진의 결과 조지아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6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제자유도가 '자유롭지 않음(Repressed)'에서 '대부분 자유로움(Mostly Free)' 단계로 격상되었으며, 순위 또한 124위에서 16위로 단기간에 급상승하는 성과를 달성함. 현재도 조지아는 서구 경제권으로의 통합 및 경제 자유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정치안정

### 2022년 3월 EU 가입이 좌절되며 여야 간 대립 심화

- 2008년 조지아 내 친러 성향의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지역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한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에 이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조지아 사회 전반에는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EU 및 NATO 가입이 국가의 최우선 전략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됨.
- 조지아 정부 역시 2020년 12월 의회 결의안을 통해 NATO 가입을 전략적 외교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정의하고, 2021년 9월 열린 UN 총회에서 EU 가입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하자 3월 3일 조지아 정부는 몰도바, 우크라이나와 함께 EU 가입을 전격 신청하였으나 회원국 후보 자격이 거절되자 정치적 양극화가 표면화되고 있음.
- 반러시아 성향의 야당은 정부와 집권 여당인 '조지아의 꿈'(GD-DG)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친러시아 정책을 펼치는 것이 EU 회원국 후보 자격 거절의 이유라고 보고 있으며,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EU 가입 불발에 대한 정부 여당의 책임을 물으며 Irakli Garibashvili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평화 시위가 벌어진 바 있음.
- 2022년 6월 EU 집행위원회는 조지아 정부가 개혁을 통해 1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조지아에 EU 회원국 후보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하였음. 12가지 조건에는 정치적 양극화 해소, 언론 자유 보장, 사법 및 선거 제도 개혁, 탈올리가르히화(deoligarchization)를 통한 러시아 잔재의 청산 등이 포함됨.
- 올리가르히(Oligarch)는 소련 붕괴로 연방 내 공화국들(러시아 포함)이 독립할 당시 국유재산을 낙찰받아 성장한 신흥 재벌로, 이들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층임. 2022년 11월 조지아 의회는 1차 독회에서 의원 89명 중 80명 찬성, 9명 반대로 탈올리가르히화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2차 독회에서는 올리가르히의 법적 등록 절차에 대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의원들은 올리가르히의 규정, 등록, 등록 철회 등과 관련된 안건 등을 논의함.
- 집권 여당인 GD-DG는 2012년 창당 이후 세 번째 집권에 성공하였으나, 통합국민운동당(UNM)를 필두로 한 야권연합의 주도로 여당의 부패와 야당 탄압, 친러시아적 성향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음. 또한 GD-DG를 창당한 Bidzina Ivanishvili 전 총리가 GD-DG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회의 결정과 국정 운영을 좌우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Ivanishvili 전 총리는 2013년 12월 총리직에서 사퇴하였으나 GD-DG의 대표들도 그가 지목한 후계자들로 승계되는 등 여전히 조지아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야당에서는 조지아의 가장 부유한 재벌 중 한 사람이기도 한 Ivanishvili 전 총리를 올리가르히로 간주하며 GD-DG의 친러시아적 성향의 배후에 있는 인물로 인식하고 있음.
- 2003년 11월의 장미 혁명<sup>8)</sup>을 계기로 2004년 집권한 Mikheil Saakashvili 전 대통령이 2013년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어 3선 실패 후 우크라이나로 망명했다가 2021년 10월 귀국과 함께 횡령 및 부패 혐의로 체포, 구금되자 야권연합을 중심으로 반대세력이 집결하여 거리시위가 일어난 바 있음.

8) 1995년 독립한 신생 조지아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Eduard Shevardnadze 정권의 부정부패로 국민적인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2003년 11월 2일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집권 여당의 선거 부정 음모가 제기되자,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손에 장미꽃을 들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여 11월 23일 Shevardnadze 대통령이 하야하고 당시 법무장관인 Saakashvili가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무혈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2005년 키르기즈의 툴립(레몬) 혁명에 영향을 주었음.

## 사회안정

### 압하지야·남오세티야 내 조지아인 탄압 및 접경 지역에서 소규모 테러 등 갈등 지속

- 2008년 조지아 내의 친러시아 지역(조지아 국토 면적의 약 20%)인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의 분리독립 선언으로 촉발된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면서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는 각각 자치공화국을 천명하고 있으나, 러시아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이들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조지아는 CIS를 탈퇴하고 이 지역들의 독립을 인정하는 국가와는 교역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함.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의 자치권을 두고 조지아와 러시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다시금 전면적인 무력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압하지야·남오세티야 지역에서 조지아인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조지아와 압하지야·남오세티야 접경 지역에서 납치, 총격전 등의 소규모 테러가 이어져 조지아 국가안보부는 테러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나, 조지아 내 테러 지원세력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테러 자제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조지아 정부는 판단하고 있음.

### 압하지야·남오세티야와의 분쟁 해결 노력으로 분열된 사회 통합에 주력

- 전쟁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압하지야·남오세티야와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다시 조지아에 통합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조지아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동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재건을 도와 장기적으로 조지아의 관광 특화구역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마련 중임.
- 분쟁으로 발생한 국내 실항민들을 위한 대규모 지원사업도 추진하여, 3.4억 달러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1만 3천여 가구에 주택을 제공할 예정임. 조지아 정부는 앞서 지난 10년 간 국내 실항민 2만 9천여 가구에 주택을 제공한 바 있음.

### 언론·NGO 통제법에 대한 격렬한 항의 시위로 조지아 집권당은 동 법안 발의 철회

- 2023년 3월 7일, 집권 여당인 GD-DG는 예산의 20%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언론과 비정부기구를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s)'으로 의무 등록하고 등록을 거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킴. 이에 시민 수만 명이 수도 트빌리시에서 정부의 새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였음.
- 시위대는 이 법안이 2012년 러시아에서 통과시킨 외국대행기관법과 매우 유사하며 러시아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 후 반정부 언론과 단체를 축출한 전력이 있음을 들어 언론과 NGO를 탄압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음. Salome Zourabichvili 조지아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혔으며, Ned Price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법안이 러시아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EU 가입과 민주주의 발전을 열망하는 조지아 시민들의 의사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함.
- 대규모 시위가 지속되자 3월 9일 FD-DG는 법안 추진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으나, 친러시아 성향의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격화되고 야권연합도 이를 지지하는 시위를 지속하겠다고 공표함.

## 국제관계

**러시아와의 관계는 신중을 기하고, 인접국들과는 실리를 추구하며, 서방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하는 다중적 외교 노선 유지**

- 2008년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의 분리독립 선언으로 촉발된 조지아 침공에서 승리한 이후 러시아는 두 지역의 자치독립권을 인정하며 군사·경제적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긴장을 조성함에 따라 조지아의 대 러시아 여론은 매우 부정적임.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조지아의 상위 5대 교역국이자 관광업, 해외투자, 해외송금(전체의 30% 이상)을 통한 외화 유입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므로, 조지아 정부는 국내 여론과 별개로 대 러시아 관계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
- 친서방 성향의 조지아가 러시아의 푸틴 행정부를 비판하자 러시아는 여러 차례 양국 간 항공편 운항을 단절하는 등 조지아에 대해 보복 조치를 반복해 왔으나, 양국 간 상품거래나 금융거래는 크게 제한받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음. 러시아 국민은 조지아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조지아는 러시아인들의 인기 휴양지로 러시아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은 여전히 중요한 관광 수입원임.
- 조지아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와 함께 코카서스 3국으로 불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영유권 문제에 따른 군사적 충돌로 현재 국교 단절 상태이나, 조지아는 무역 중개항 및 원자재 수송의 통로로서 두 국가에게서 모두 경제적 이득을 취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미국은 조지아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 수천 명을 파병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인식하고 있음. 대 러시아 제재로 인해 유럽으로의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러시아를 우회해 주요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통로로서 조지아를 유럽 안보에 필수적인 중요한 국가로 재평가하고 있으며, 2020년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과 조지아의 협력 중점사항으로 조지아 총선 지지, FTA 체결 추진, NATO 가입 지원, 국방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간함.
- 조지아는 과거 NATO 비회원국들 중 최대 규모의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하여 강력한 동맹국임을 증명하였음. 이에 미국은 조지아에 7억 달러 이상의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3년 동안 조지아 국방 강화 프로그램 발족, 국방 및 군사정책 조언 등 조지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옴. 또한 조지아는 미국이 냉전 종식 후 NATO 비회원 동맹국들과 체결한 PfP(Partnership for Peace)를 통해 NATO의 정식 가입 전 단계 수준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교류를 지속하고 있음.
-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의 빈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04년 미 의회에 의해 설립된 양자대외원조기관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MCC)은 2011년까지 기반시설 투자로 조지아의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교육개혁 추진에 협조한 바 있음.
- 조지아는 UN, 유럽대서양협력평의회(Euro-Atlantic Partnership Council),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IMF, 세계은행, WTO 등의 회원국으로, 다국적 기관과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또한 기존 러시아-CIS 중심의 경제협력 범위를 서구권으로 확장코자 국제협력체 기준에 부합하는 준칙을 설정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 서구권에서는 조지아를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2022년 9월 말 기준 조지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 지원 잔액은 전년 동기(179.2백만 달러) 대비 21.7% 감소한 140.3백만 달러(단기 70.5백만 달러, 중장기 69.8백만 달러)이며, 이 중 0.1백만 달러가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됨. 연체규모가 매우 미미하여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 (2023.01)	6등급(2022.01)
Moody's	Ba2 (2022.04)	Ba2 (2021.08)
Fitch	BB (2023.01)	BB (2021.08)

### 국제신용평가사는 조지아에 대해 투자부적격 등급 부여, OECD는 6등급 부여

- OECD는 2007년 1월 조지아의 신용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뒤 2023년 3월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Moody's는 2017년 9월 조지아의 신용등급을 Ba3에서 Ba2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으며, Fitch는 2019년 2월 조지아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이후 조지아에 대한 등급 변동은 없었으나, Moody's는 2023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 반면 Fitch는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하였음.
- Moody's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조지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어 외국인투자가 위축되어 조지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해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함.
- 반면 Fitch는 조지아 관광업 재개와 이주 러시아인들의 민간소비 지출이 이끄는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채상환능력 수준이 양호하다고 판단, 전망을 '안정적'과 '긍정적'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 신용평가사들은 글로벌 경기 변동에 취약한 산업구조, EU 가입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도기에 있는 점, 여전히 러시아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오는 정치적·지정학적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조지아를 '투자 부적격 단계' 국가로 판단하고 있음.

- 조지아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업 재개, 러시아 이주민을 필두로 한 민간소비 지출 증가, 외국인투자 유입이 증가하며 2022년 9.0%대의 고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되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3년 경제성장률은 5%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 정부의 일관된 친서방 정책과 EU 가입 지원 등 서구 경제권으로의 편입을 위한 제도 개혁, 투자환경 기반 조성 노력으로 FDI 유입이 크게 늘었으나, 여전히 러시아 및 CIS 국가들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으며 사법·금융·지적재산권 개혁 등은 유럽 기준에 미달한 수준으로 보완이 필요함. 또한 빈약한 제조업 기반, 단순 가공업 위주의 저부가가치 산업구조 등은 경제개혁의 과제로 남아 있음.
- 달러화 표시 외화자산의 비중이 높고 고금리로 인한 투기성 자금 유입 비중도 높아 이에 대한 감독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식료품과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이들의 국제가격에 따라 경제성장 변동성이 크게 좌우되어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